

2014년 11월 3일 새벽정리요약말씀

금주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런 삶이니 만큼 그런 것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어려움을 받고 일어나듯이 너희들도 그러할 것이다. 시대의 버림도 받고 시대의 고난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다 내가 넘어온 어려움이니 너희도 넘어오도록 하라.”

어려움을 이기려면 많이 깨닫고 알기도 해야 하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들이 받을 것을 못 받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책임지려면 다 지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날그날 받는 것도 있고, 모았다가 받는 것도 있고, 들키면 받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잘 조심히 쓰면서 살면 굉장히 오래 삽니다. 보통 100년은 산다고 합니다. 100년은 웬만하면 삽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합니다. 어떤 꼬부랑 노인이 되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음식 문제에 의해서 엄청난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의 약으로 보아야 됩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됩니다. 음식을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건강합니다.

나도 75년부터 겨우 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을. 그때부터는 몸조심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해 주셨고, 그 후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며 살면 100살 같은 것은 웃기게 삽니다.

모든 인생살이를 볼 때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말고, 악으로만 보지 말고 자꾸 풀어 나가고, 자꾸 풀어나가고, 자꾸 풀어나가야 됩니다. 풀어나가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풀어나가고, 자꾸 만나고. 누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또 만나 주고 만나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면으로 자꾸 커야지 종교에만, 말씀에만 고정적으로 원리만 가지고 뚫고 나가면 안 됩니다. 너그럽게, 부드럽게! 내가 그랬잖아요. 거죽은 둥글둥글, 속은 네모지게, 심정은 세모지게 날카롭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 때 생활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허리를 굽히고 이름을 대고 근황을 물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게 더 선물 사가는 것보다 기억에 더 큼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삶을 풀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삶을 풀어가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가는 전형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는데, 나의 전형 길을 따라서 이들도 오는데 내가 고난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이들도 고난을 받고 왔습니다. 의와 사랑과 공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강에 대해서도 이리이러 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불효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해서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건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오래토록, 여러 번, 반복하고 지속할 때에 어떠한 체질이 변화도 되고, 변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러 감동을 시키고 말씀했으니 그렇게 살게 해 주시고, 약하고 연약한 자는 참고 견디어서 오랫동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는 것도 크나큰 철학이고, 실천하는 것도 크나큰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맞추어 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의로 채우는 전국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와 따르는 자, 가르치는 자, 따라오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 가운데 서로 우애하고, 서로 화평케 하고 서로 그리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그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 화평케 하고, 서로 위하고 섬김의 도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니 그렇게 살도록 전국과 각 나라 전체의 섭리사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지땅에서 뛰고 달리며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이 다침과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해 주시고, 이방과 저방, 우리 민족의 세계를 지키시고, 특히 주먹을 갖고 휘두르고, 사상 갖고 휘두르고, 혈기 갖고 휘두르는 깡패와 조직단들은 새벽마다 산에 가서 하나님께 늘 올리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같은 세상을 살면서 약자들이 강자에게 짓밟히며 흔들림을 받을 때 원통함과 그 서러움을 하늘 앞에 대변하여 올리오니 의로 채워 주시고, 이 나라에 그 억센 호랑이 발톱과 꿈의 발톱같이 흔드는 자들을 모두 처리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도 마찬가지로, 싸움만 일삼는 철의 장막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통해서 이 민족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한 역사와 큰 근거를 삼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미국이 기관단총을 버리고 더욱 평화의 나라로 발돋움하듯이, 자기의 주권만 세우는 것도 다 깨부수었습니다. 세계의 각 나라가 어떤 물질만 자랑하고, 어떤 권위만 자랑하고, 어떤 무기만 자랑하고, 어떤 전쟁만 일삼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동안도 하나님께서 다스렸고, 매질했고, 채찍질로 다스려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더욱 찬란케 섭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충만한 이상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회나, 정치의 세계도 매일 다투고 싸우지 말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는 연구와 수고와 애씀이 보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그런 자들이 이 나라에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섭리 나라에 와서 이제 섭리의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권의 행사도 하지 말게 해 주시고, 서로 위하며 섬기며 살아 주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바 인생들을 멋있고 가치 있게 살며 희망차게 사는 이들 위에 은총과 사랑을 더욱 함께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이 하늘나라의 정치가 도의 정치가 되고, 인류권 정치가 되어서 모두가 평화와 이상을 품게 하시고, 이 나라에 와서 서운하다고 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사랑과 믿음의 실족함을 느끼고 가는 모든 자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왔다가 후회하고 나가서는 세상의 쓴맛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나라 이곳에 하늘의 거룩한 성지 에덴을 주신 것을 감당케 해 주시고, 귀히 여기고 천히 여기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손이 닿는 곳이 우리 땅이 되게 할뿐 아니라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이 좁기에 남은 땅을 더 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내가 30만, 40만 명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일생에 휘날리게 할 것입니다.

구약을 생각하고, 신약을 생각하며 하늘 역사의 슬픈 가슴을 생각하며 기필코 내가 이 고사리 같은 손이지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만민이 돌아와서 이 기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같이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하는 일이니 용서와 사유를 주시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희망찬 그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지로 그러는 것이기에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늘 까마귀가 울부짖고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데 늘 기도해서 환난을 막으며, 늘 까치가 울어

서 하늘이 보낸 자를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평강과 의와 공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전도되지 못해서 늘 슬픈 애가를 부르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때와 시기를 따라서 나와 같이 어려움을 이기고, 참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우리까지 영향이 심히 큼니다.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섬리 나라에서 뛰고 달리는 만큼 잘되고 형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모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워 삶이 지혜롭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슬픔과 고뇌와 고통을 받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으니 그러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안 믿어 주고 내가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해서 흑암과 사탄의 울무에 걸리지 않도록 늘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각 나라와 아시아권을 중심한 각 나라들이 멀리서 나를 쳐다보며 모두 안타까움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모든 자들이 있어 내 발길이 떨어져서 그들의 나라도 가려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날개 치게 해주시고, 또 백조처럼 날아 그들을 살피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니 이들이 모두 잘되고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돌이 되지 않고, 가벼운 비행기처럼, 백조처럼 날아다니게 해 주시고, 독수리의 사명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약한 곳을 치료해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는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컨데 기도하오니 그들의 생명을 기억해 주시고, 살피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행여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사유와 용서를 주시고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오니 강건케 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